

제9차 Codex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 참가보고

김 명 호
표준화연구부

필자는 '9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북경의 KunLun Hotel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9차 Codex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다. 동 조정위원회의 개요와 금번 제9차 회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Codex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 (Codex Coordinating Committee for ASIA ; CCASIA)

CCASIA는 세계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CAC)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Codex관련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내 국가들간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CAC의 하부위원회 중 하나로서 이러한 지역조정위원회는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북미 및 남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CCASIA는 CAC 총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격년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내 국가들의 관심사항과 자국규격의 국제 규격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CCASIA의 의장은 중국 국무원 참사 겸 위생감독시험소 명예소장인 Dai Yin박사가 맡고 있으며, 금번 제9차 회의는 '93년말 UR타결과 최근의 SPS 및 TBT협정의 타결을 통해 국제 식품

규격에 관한 적절한 권위기구로서 CAC가 인정받게 됨에 따라 지역내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제9차 CCASIA에서는 최근까지의 CAC 및 기타 분과위원회와 관련 국제기구들의 활동상황이 소개되었고, 아시아지역내 국가들의 Codex관련 활동 촉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아울러 지역내 국가들의 식품품질 및 안전성 관리활동에 관한 소개와 소비자 참여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또한, 지역내 국가들이 제안한 Codex 규격 초안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2. 제9차 CCASIA회의 내용요약

가. 한국대표단

- 수석대표 : 이상용 주중국대사관 농무관
- 대 표 : 유규중 농림수산부 농업주사
- 고 문 : 김명호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연구원
- 고 문 : 김일환 (주)서도화학 대표이사

나. 참가자 : 12개국 122명, 5개 유관 국제기구 10명, 계 132명

다. 토의의제 : 18건

라. 회의참가목적

- 1) 아시아 지역내에서의 각 국별 Codex관련 활동동향 파악
- 2) 식품 국제규격화에 따른 우리나라 입장 반영

마. 주요 토의사항 및 한국대표단 발언요지

○ 의제 6,7 : Codex 농약 최대잔류 허용기준 (MRLs) 및 규격류의 수락실태

- 지역내 국가들이 최근 “Free Distribution”의 형태로 Codex 규격류를 수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고, MRLs에 대해서는 최근 “Codex Alimentarius” 제3권이 출간되어 각 국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지역내 각국들은 이들 MRLs의 수락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계속 정비 중인 실정이었음. 아국의 경우는 HACCP 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Guideline의 수락을 검토중이고, 기타 Codex MRLs 및 규격류와 규약의 수락도 검토중임을 설명하였음.

○ 의제 8 : 지역내 국가들의 식품품질 및 안전성 관리 활동 소개

- 지역내의 많은 국가들이 식품품질 및 안전성관리 활동에서 HACCP 시스템과 TQM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었고, ISO 9000 시리즈에 따른 인증제도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식품위생 관리제도와 가공식품 KS제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였음.

- 일본은 별도로 “수입식품에 대한 예비인증제도”를 식품위생법에 의거 새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밝혔음.

○ 의제 9 : UR의 SPS협정 및 TBT협정 결과 보고

- 사무국은 '94년 4월 모로코에서 열린 GATT회담에서 여러가지 GATT협정이 공식 타결되었음을 밝혔고, 이중 SPS 및 TBT협정이 CAC의 관

심사항이며, 이들 협정의 최종 보고서는 이미 각국의 Contact Points로 송부하였다고 밝혔음.

○ 의제 10: Codex 관련활동에의 소비자참여 문제

- IOCU(국제소비자 기구연합) 참관단은 Codex 관련활동에서의 소비자참여 개선을 위한 방안을 소개했고, 아국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은 자국내 식품관리 활동에서의 소비자 참여 현황을 밝혔음.

○ 의제 11 : Street Foods에 대한 실행규약 초안 검토

- 금번 회의에서는 이 규약을 STEP 4로서 검토하였고, 사무국은 제26차 식품위생에 관한 Codex 분과위원회가 이들 규약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역규약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음을 상기시켰음. 이 문제는 STEP 3으로 되돌려서 지역내 국가들의 협조속에 재검토하도록 결정하였음.

○ 의제 12, 13 : “Halal Foods” 표시방법 규약 및 기타 식품규격에 관한 검토

- 금번 회기에서 논의된 5개 규격(죽순통조림, 건조안초비, 어육크래커, 피클류, 처트니)과 “Halal Foods” 표시방법 규약은 모두 STEP 3으로서 각국의 협조하에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 의제 14 : Codex Contact Points 및 National Codex Committee를 위한 Guideline 제정

- 금번 회의에서는 태국의 성공사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되었고, 이에 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모든 참가국이 지지하였음.

○ 의제 17, 18 : 차기 회의 개최지 및 지역조정관 선임

- 차기회의는 일본의 동경에서 '96년초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본의 Yuzo Hayashi 박사가 만장일치로 지역조정관으로 선임되었음.

○ 기타 논의사항

- “Halal Foods” 표시문제는 식품표시에 관한 Codex 분과위원회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할 수 있음과 지역내 관심사항인 “수출입 식품의 검사 및 인증”은 Codex 식품수출입 검사

및 인증시스템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음을 밝혔음.

- 전통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이들 식품이 교역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Codex 규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사무국이 밝혔고,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본 회의 의제에서 제외하였고, 향후 WHO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음.
-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사무국으로 제출하도록 요구되었음.

바. 정책건의사항

○ 한국 Codex 위원회 설치 및 전문가 확보

-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내 모든 국가가 Codex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되었으므로 한국도 Codex 국가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야 하며, Codex 관련활동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Contact Point 변경 필요

- 현재 한국의 Codex Contact Points는 주이태리 한국대사관 농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관련 자료의 신속 정확한 입수가 지난하므로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실로 Contact Points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CODEX 관련활동의 체계화

- CODEX 산하 각종 분과위원회별로 다루어지는 분야가 고유하므로, 분과위원회별 규격 및 규약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 검토 및 입장정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조정위원회 및 총회에서는 전문적인 토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국내에서 계속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정된 정부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 CODEX 국가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들 산하에 상설 전문가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이들 전문가 그룹간의 정보교환도 촉진하여야 함.
- 현재, 각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격들에 대해 세부검토 및 논평을 확실히 준비하여 해당 위원회 또는 총회 사무국으로 정부논평을 적극 전달할 필요가 있음.
- CODEX 세계규격에 대한 분야별 관장기관 지정
- CODEX가 제정하는 각종 규격 및 규약에 대해 분야별로 관장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의 검토 및 한국 입장정리와 논평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